

# 예술대학 교육환경 속 갈등관계에 따른 자기검열 연구: 귀인이론을 중심으로

김광철<sup>1</sup>, 송진호<sup>2\*</sup>

<sup>1</sup>세한대학교 실용음악학부 교수, <sup>2</sup>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 석사과정

## A Study on Self-Censorship by Conflict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Art College: Based on the attribution theory.

Kwang-Cheol Kim<sup>1</sup>, Jin-Ho Song<sup>2\*</sup>

<sup>1</sup>Professor, The Faculty of Practical Music, Sehan University

<sup>2</sup>Master's Course, Department of Art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art,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술대학 교육과정 중 나타나는 갈등관계와 자기검열 행동동기의 원인이 되는 귀인성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문헌 연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설문지와 연구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서울, 충남 소재 2개 대학교 예술학과 재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중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고 유의하게 나타난 요인에 대해 매개효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기검열과 개인간 갈등관계에 대한 외적귀인 성향이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술대학생은 교육환경 속 갈등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문제의 원인을 타인, 과제 난이도 등의 외적특성으로 지각하고 좌절감, 수치심의 정서가 자기검열의 행동동기가 된다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성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외부 억압과 자기검열은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하는 학습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속 표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역량을 발휘하는 교육과정과 자유로운 창작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자기검열, 예술대학, 예술대학생, 갈등이론, 귀인이론,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find ways to reduce self-censorship by identifying the conflict and attribution to the motivation for self-censorship during the curriculum of the College of Arts. The analysis confirmed the significance of each relationship by conducting a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variables, and the analysis of the effects was based on the significant factors among them. The analysis showed the external locus of control toward self-censorship and interpersonal conflict had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other words, as the degree of conflict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increases, art college students are aware of the cause of the problem due to external characteristics such as others, task difficulty, etc., and thus confirmed the conclusion that frustration and shame caused by it become the motive for self-censorship.

**Key Words** : Self-censorship, Arts College, Arts College Students, Conflict Theory, Attribution Theory, Mediation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in-Ho Song(pbucket@naver.com)

Received January 12, 2021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February 15,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 원인을 검증하고 교육환경을 제언하고자 함에 있다. 예술대학은 인간의 창의성을 기초로 한 예술이론과 미학적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타 전공과 비교할 때, 교육 양상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예술이 가지는 창의성과 상호관계성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예술은 개인의 경험과 창의성에 대한 활동일 뿐 아니라, 교육자 또는 관객 등 영향을 미칠 대상을 고려하게 되어 자유로운 표현의 적극성을 가지기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작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욕망과 사회 정서 혹은 규범 간의 상충된 갈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특성을 종합할 때, 평가를 통한 인정 혹은 교육 과정의 이수 과정에서 개인의 목표와 욕구 간의 갈등상황을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예술 본연의 기능을 해치거나 교육역량을 제대로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기검열의 연구는 자기검열 발생 원인의 인과성을 밝히거나[1,2], 자기검열의 유형 개념화시키는 연구[3,4]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술과 교육이 혼합된 자기검열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예술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자기검열의 원인으로 갈등을 지목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심리적 이론을 통해 예술대학생의 창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검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검열을 지각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심리적 전개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분석과 예술대학생과의 심층 면담으로 자기검열의 존재 여부와 유형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예술대학생과 예술대학에서의 갈등 관계를 매개로 나타나는 자기검열에 대한 시사점, 창의적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제언과 함께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자기검열과 관계분석

### 2.1 자기검열의 다양한 정의

#### 2.1.1 자기검열의 정의

자기검열(Self-Censorship)이란 검열이 자신(Self)을 매개로 나타난 검열(Censorship)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타인에게 알리고 싶은 이타적인 욕망에서가 아니라 단순

히 외부의 직, 간접적 압력에 의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자, 내부적으로 스스로 부과한 검열[2,5], 정보를 고의로 보류하거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청중으로부터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보류[3,6]하는 것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기관의 재정적,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7,8]으로 정의한다.

전통적인 검열이 국가 혹은 사회적 단위에 의한 통제으로써 강제되는 표현의 규제라면 자기검열은 개인의 위험한 욕망을 도덕적 의지로 억누르거나, 의식의 표면에 따르지 않도록 개인에게 내재하는 심리적 갈등과 작용으로 이해된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표상 속 이념, 감정, 행동 의도의 표현은 개인적 '자아' 영역과 사회의 관습, 이념 또는 문화와 같은 관념의 사회적 '자아'가 공존하는 것[8,9]으로 이해하는데 자기검열 또한 '본래의 나'와 사회가 부여한 사회계약 속에 '사회적 나' 사이의 '자아'에서 발생하는 양가적인 갈등이자, 개인이 정보공유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딜레마 혹은 심리적인 갈등이다.

자기검열이 나타나는 원인은 학자와 연구에 따라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특정한 정보의 공유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적 갈등을 지목하며, 범위에서도 전통적인 검열과 마찬가지로 정치, 예술,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형태로 개인과 조직 관계 속에 나타난다[2-4,7,8,10]. 이 가운데 본 연구와 유사한 실증연구로 Roberts & Nason(2011)은 학습환경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자기검열 원인에 대해 자기표현과 인상, 소속 집단의 화합, 타인에 관한 관심, 참여기여 정도, 결과에 대한 집중 그리고 조직 내 힘의 균형을 꼽는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학생은 팀의 대립을 피하고자 본인의 학습 정도를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인지 부조화 현상을 밝히며, 학생의 경쟁적 관점과 좌절감의 인과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기검열의 경험은 불안, 위축, 염려, 자존감 하락, 수치심, 좌절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2,3,11]를 수반할 뿐 아니라 사회가 내린 결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개인의 성장과 창의성을 저하하고 그룹 내 창조적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11-13].

#### 2.1.2 예술과 예술대학에서의 자기검열

예술에서 표현은 개인의 생각을 심미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이념을 다루는 총체적 개념으로 예술가에게 자기검열 또한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술에서의 자기검열이 특수한 것은 예술이 사회적 경험을

통해 생산되는 사회적 생산물로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더라도 일부의 사회현상을 반영하거나 주장하는 점에 있다. 즉, 창작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회 의존적인 성격을 함축하며 예술이 사회적이고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된다[8].

이러한 특징은 특정 대상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 혹은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표현과 사상으로 간주 될 때, 창작물에 대한 삭제, 배제, 예산삭감, 시설통제 등의 억압적인 수단으로 유통을 강제하게 된다[10]. 창작자는 이러한 검열 경험과 함께 반대 여론의 형성을 회피하는 기제로 연결된다.

예술가의 자기검열에 대해 영국의 'Arts Professional'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14]. 조사 결과 예술가들은 대중, 기금 출연 기관, 동료들의 반발을 피하고자 정기적으로 자신의 견해와 작업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참여자의 45%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직접 또는 미디어에서 압박, 협박, 배척, 강요, 괴롭힘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창의적인 의사결정이 '검열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예술에서의 자기검열은 예술표현에 대한 외부의 간섭과 억압으로부터 갈등을 겪는 것으로 스스로 결정하였던 표현을 철회하거나, 예술표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여 문제를 회피하려는 양상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에 접근하고자 한다. 예술인이라든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을 말한다(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예술대학생은 대학을 통해 위와 같은 예술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을 이수 받는 학습자로 정의된다.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즉, 지식의 제공과 수용이란 측면에서 상호관계적인 성격을 갖는데 예술대학생의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예술이 매개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은 대표적으로 도제식 교육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장인이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으로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예술의 전달방식은 창작자의 개성적인 표현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현상 혹은 사고의 상호작용이라 하였을 때, 창작자와 교육자의 예술에 대한 의견과 성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자아와 타인의 자아가 상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거나, 심한 경우 억압에 의한 위계적 관계로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침해한다[2,15]. 따라서 대학의 특성상 평가 기준을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거나, 모든 교육과정에 다양성의 수용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표

현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생과 대학의 관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요하고 통제되는 특성을 가진다[16].

종합하면 예술을 통한 자유로운 표현의 제한 혹은 획일화는 학업성취를 제한하며, 설명한 자기검열과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예술대학생에게 자기검열이란 학습자의 학업 욕구와 대학에서 부여되는 교육환경이 서로 충돌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결과이자, 제한된 교육환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 2.1.3 자기검열과 갈등이론

일반적으로 조직이론에서의 갈등(Conflict)은 조직 내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둘 이상의 관계에서 희소 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 배분 또는 목표, 가치인지 등의 차이가 존재할 때, 심리적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 정상적인 활동이 방해되거나 파괴되는 과정을 지각하는 사회적, 심리적 상태를 가리킨다[17-19].

갈등에 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일치의 정서가 심화된 것 [17,20,21]으로 보며, 갈등과 관련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갈등의 원인과 정서 관계의 인과성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 Thompson(1967)은 권위적 상호의존관계의 초점을 두며, 상위자 혹은 체제에서 나타나는 '권리체제에서의 갈등',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등에서 나타나는 '신분체제에서의 갈등', 셋째, 능력, 태도, 판단영역에서 타인의 태도가 개인의 결정을 침해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능력에서의 갈등'으로 구분한다. Thomas(1992)는 더욱 심리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상황에 의한 개인의 내적갈등 그리고 둘 이상의 사회적, 조직 단위에서 발생하는 외적갈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 중 Rahim(2017)은 Thomas의 갈등을 발전시켜 조직 내 갈등을 개인적 갈등(individual Conflict)과 개인간 갈등(interpersonal conflict)으로 세분화하여 재구성한다. 첫째, 개인적 갈등은 개인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목표, 좌절, 역할에 따른 갈등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개인의 내재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둘째, 개인간 갈등은 Thompson(1992)이 제안한 갈등의 확장으로 이해되며, 둘 이상의 개인들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자, 상반되는 목표, 태도, 성격, 가치관의 차이를 지각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개인적, 개인간 갈등에 관한 갈등 관계는 직무

활동, 관습에 대한 의견 불일치, 자율과 경쟁,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와 같은 실질적이고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관계에서 나타나며, 집단의 생산성, 만족 및 몰입뿐 아니라 과업수행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7,20,22].

앞선 자기검열에서 살펴본바, 예술대학은 교육자의 태도, 수업 환경 및 규범 등에서 학생과의 의견 및 목표 차이가 관계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방해와 심화된 갈등은 개인의 창의적 역량과 몰입 정도를 감소시키고 상황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경향[17,10,22]이 나타나며, 자기검열과 동일한 성격으로 이해된다. 이는 예술대학의 교육환경, 즉 도제식 교육과 제한된 교육과정 속에 존재하는 관계 갈등이 상호관계적인 성격을 벗어나 상호 배타적인 형태 즉, 직무(학습)갈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위한 노력과 결과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1.4 자기검열과 귀인이론

귀인(attribution)은 성공 또는 실패로 나타난 결과의 원인을 지각하고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귀인 연구 또한 사건 결과의 원인에 따라 자신이 처한 환경과 행동 결과의 인과적 구조를 파악하려는 동기[23]로 볼 수 있다.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성취 결과 원인을 찾는 주요한 원리[24,25]이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 귀인을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라 하며, Rotter(1966)는 원인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개인의 행동이 기초적인 능력과 시도에서 다시 노력으로 이어지는 영속성을 가지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각한다면 내적 귀인성향(internal locus of control), 반대로 개인의 행동이 전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외부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지각한다면 외적 귀인성향(external locus of control)으로 구분한다.

Rotter의 이론을 발전시킨 Weiner(1986)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본능이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그는 Heiner, Rotter, de Charms 등의 단일 차원의 귀인 연구들이 동기에 따라 행동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밝히며, 행위자의 행동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동기의 원인에 귀인 되는 차원(dimension)과 분류 도식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귀인하는 요인으로 행위자의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혹은 '운'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내외적 통제 차원과 안정성 차원으로 구분한 2차원 도식을 개발하

였다.

하지만 2차원 도식이 행위자의 관점에 따라 불분명하게 분류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제소재를 소재성(locus of causality),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안정성(stability) 3가지로 구분하여 Table 1과 같은 3차원 도식으로 강화한다. 첫째, 원인의 소재성 차원은 행동의 결과가 자신 혹은 외부에서 비롯된 원인으로 보며, 내적-외적 원인에 대한 개인의 내적특성 혹은 외적특성과의 인과성을 가지는지 구분한다. 둘째, 원인의 안정성 차원이란 행동결과가 시간의 경과나 상황이 바뀌어도 항상성을 지니고 있다면 안정적인 것, 수시로 변화된다면 불안정한 문제로서 안정적-불안정적 차원으로 특징된다. 셋째, 통제 가능성의 차원은 원인의 행동결과가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느냐, 통제될 수 없느냐로 통제 가능성-통제 불가능성으로 구분한다.

Table 1. Revised determinants of success and failure (Weiner, 1980)

	Internal		External	
	Stable	Unstable	Stable	Unstable
Uncontrollability	Ability of self	fatigue, mood	Fatigue, mood	Luck, Fatigue, mood
Controllability	Stable effort of self	Unstable effort of self	Stable effort of others	Unstable effort of others

또한, 그는 성취결과에 따라 귀인하는 정서로 성공 시 능력-유능감과 자존감, 노력-긴장 이완감, 타인-감사함, 운-놀라움. 실패 시엔 능력-무능력과 자존감 하락, 노력-죄책감과 수치감, 타인-분노, 운-좌절로 연결되는 것을 밝히며, 특성에 따른 성향마다 개인의 행동동기를 부여하고 정서와 행동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귀인이론의 최종모형을 제시하며, 4가지의 지배적인 인과귀인(능력, 노력, 타인, 운)이 성공과 실패에 따라 세 가지 인과차원과 행동동기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Fig. 1과 같이 추가로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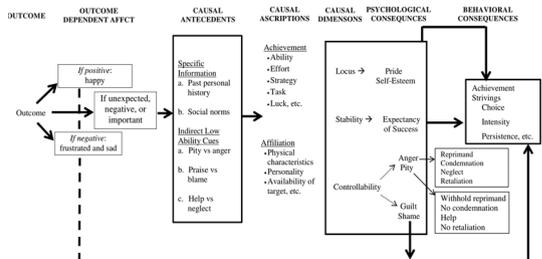


Fig. 1.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Weiner, 1986)

결과적으로 정서에 따른 행동동기로 소재차원은 자부심과 자존감, 안정성 차원은 희망 또는 기대변화, 통제 가능성은 죄책감 및 후회, 수치심을 포함하는 정서로 특징짓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자기검열과 귀인성향의 연구는 검열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결과가 현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고 정서와 행동으로 연결되는 인과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자기검열은 자신이 의도하였던 결과가 외부의 억압, 강제로 인해 포기하거나 문제요인을 제거하여 변화시키는 것으로 특정한 원인에 의해 학습자가 목표로 하였던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즉, 학업성취의 실패로도 간주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기검열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이를 지각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성격이 나타나고 있어 행동결과와 인과성을 통제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귀인성향과 자기검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자기검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행동결과와 정서와 동기를 해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1.5 갈등이론과 귀인성향 간의 관계

앞서 살펴본 갈등이론은 집단내 목표의 불일치, 의견 차이에 대한 대립으로 자신의 내적 자아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 동일한 갈등이라도 대처방식과 인지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발생 양상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갈등과 귀인성향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갈등 유형이 개인의 행동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지각되는 갈등원인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갈등에 대한 귀인연구로는 주로 조직 내 갈등 관계 속 귀인성향의 영향을 살피고 있는데, 김수하(2006)는 갈등 인식에 따른 직무 수행 및 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며, 외적귀인 성향이 갈등 관계와 정(+)의 영향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과 직무 만족도 간의 상관을 밝혔으며, 오성렬(1998)은 갈등상황에서 내적귀인 성향은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억제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외적귀인 성향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위협이나 좌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정적 반응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적성향의 개인은 더 노력하여 행동을 변화시키지만, 외적성향은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양상을 보였다[26]. Rachel & McLaren(2015)는 귀인성향에 따라 갈등에 대한 책임과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 차이를 분석한다. 갈

등원인이 타인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의도적인 행동에 귀인할 때, 부정적인 방식을 취하거나 상황을 회피하였으며, 갈등 양상과 귀인성향이 상호 간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앞선 연구를 종합하였을 때, 원인이 되는 내외적 소재에 따라 갈등 양상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갈등 관계에서 노력과 능력과 같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내재적인 특성에 귀인하였을 때, 개인은 문제를 완만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태도로 가지는 한편, 타인, 운, 상황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적성향에 직면하는 경우 포기, 회피, 좌절 등의 부정적인 정서로 연결되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갈등을 지각하는 특성이 외적성향에 머물 때, 그 정도가 부정적이고 의도적인 방해로 확장된다면 개인의 적극적인 심리를 위축시키고 창의적 활동과 행동이 위축되는 양상[26]이 나타나는바,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예술과 대학생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동기화는 학습성과 혹은 창의적 표현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특성은 Weiner(1986, 2010)의 동기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 중 통제 가능성의 심리적 결과는 수치감, 죄책감으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갈등 관계는 원인을 통제할 수 있으나, 없느냐로 구분되며, 지각되는 소재가 행동결과와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갈등과 귀인성향과의 관계는 귀인성향에 갈등 관계가 매개되는 영향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사건의 행동결과를 인지할 때, 갈등의 유형이 행동결과를 영향을 미치고 심리 결정을 변화시키는 인과적 원인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방법 및 대상

### 2.1 예비연구

본 연구의 주제인 자기검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정적인 정서와의 관계를 사회, 경제, 교육적 맥락에서 자기검열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해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육과 창작이 혼합된 예술교육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실증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예술대학에서의 자기검열 발생 여부와 유형을 파악하고 설문문항의 기초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예술대학에 재학 중인 3명의 피면담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Interview)된 질문카드를 사

용하여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예술대학 속 교육환경에서 나타나는 자기검열 경험과 동기를 기본 절차로 시작하여 대학 내 갈등 관계 및 한계점, 귀인성향을 파악하는 순으로 발전시켰다.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대학 교육과정이 교육을 통한 예술대학생의 창조적 활동을 향상하고 자유로운 예술표현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 교육임에도 실제 교육환경은 위계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선호하는 작업은 교수의 가치관에 맞지 않아 평가에 취약하므로 시작할 수 없었다...”(면담자 A)

“자기검열의 경험은 커리큘럼에서 더 많이 느꼈다..., 수업의 교과명이 같더라도 교수의 전공이 수업 성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크지만 졸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면담자 B)

“교수님의 반응이 이 작업을 했을 때 어떨지를 생각하게 되거나..., 교수님의 취향을 맞추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내가 스스로 검열을 하고 있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것 같다...”(면담자 C)

교육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그 이후의 학습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갈등의 원인을 추적하고자 하였으며, 갈등의 원인과 대상에 대해 면담한 결과 피면담자들은 교육자와의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엔 약간의 갑을 관계, 위계 혹은 엘리트주의가 존재한다고 생각..., 수업 중 의견 차이를 좁히려 한 것이었지만, 교수와 말다툼이 일었고 우리는 의욕을 잃고 포기하였다.”(면담자 A)

“교수님이 알게 모르게 피드백으로 눈치를 주셨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의견이 대치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기에 학점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굳이 신경 쓰려고 하지 않았다.”(면담자 B)

“대학을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몇 차례 제안했지만, 결국 교수님 맘대로, 교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갈등이 다 포기되어 지더라고요.”(면담자 C)

뿐만 아니라 교육자, 교육과정으로부터 인지되는 정보에 의해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보류하거나 고민하는 등의

내재적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수의 취향을 찾아 성적을 잘 받을 것이냐 혹은 자기 작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내적갈등이 있던 것 같다. 작업의 평가 기준에 따라 스스로 고민이 생긴다...”(면담자 B)

“교수와 면담 이후 작업 가이드를 주는데 여기서 교수의 반응을 생각하게 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작업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담자 C)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갈등 관계가 귀인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기검열을 지각하는 특성 역시 귀인성향을 밝히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면담을 진행한 결과 내·외적 성향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점은 교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혹은 잘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척을 하고 싶어서 그런 척을 하다 보니 약간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다.”(면담자 A)

“상황 혹은 운적인 것 같은데..., 노력하더라도 운이 나빠서 학점이 나쁘게 나왔을 수도 있다. 다른 학생들 노력에 비해 점수가 잘 받으면 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면담자 C)

심층 면담 결과로 자기검열과 관련될 수 있는 요인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Motivation Factors Affecting Self-Censorship

Topic	detail	content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ors and Professor	Educators preferred topics, values, and standards for evaluation
	curriculum	Curriculum Contents
	school rules	Education evaluation score and graduation standard
Self-Censorship	external cause	Luck, awareness of others, evaluation criteria
	Internal cause	comparison of effort, confidence in one's ability
Relationship Conflict	personal perception	The purpose of the professor's education, differences in evaluation with others, satisfaction level
	relational perception	Differences in opinions with professors, the degree of reflection of individual opinions

## 2.2 조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4년제 대학 중 예술 관련 학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0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에 설문지 200부를 배포하고 이중 회수된 147부, 온라인 회수 17부, 총 164부가 채집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최종 158부를 데이터 코딩을 거쳐 SPS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pondent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y	N
Gender (N=158)	Man	76
	Woman	77
	unresponsive	5
Grade age (N=158)	1rd Grade	16
	2rd Grade	55
	3rd Grade	37
	4rd Grade	45
	Other(graduate school)	5
School (N=158)	University	127
	Junior College	31
Speciality (N=156)	visual arts	52
	performing arts	66
	Traditional Arts	7
	others	31

## 3. 연구설계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예비연구를 토대로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

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관계와 귀인성향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Fig.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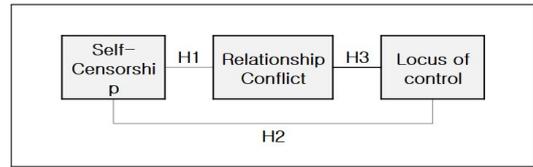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 3.2 연구표본 및 가설설계

본 연구는 예술대학 교육환경 속 자기검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자기검열 특성 1개, 귀인성향 2개, 갈등요인 2개 총 5개의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예비연구로 파악한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 갈등, 귀인성향을 바탕으로 Hayes A. F(2005)의 8가지 자기검열 척도(WTCS)를 재구성하여 교육환경 속 나타날 수 있는 자기검열 10문항, 갈등관계로는 Jehn(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관계적 갈등척도를 국내 정서에 맞도록 수정한 김영분(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인적 갈등 5문항, 개인간 갈등 5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귀인성향에 대해서는 자기검열을 일종의 학습실패로 추측하여 Rotter(1966)의 내외통제척도(I-E)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의 내외통제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던 김지연(1999)의 연구를 보완하는 것으로 학습실패에 대한 내적귀인 성향 8문항(노력, 능력), 외적귀인 성향 8문항(타인, 과제 난이도)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기초통계 4문항, 총 40문항을 Table 4과 같이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수 있었다.

Table 4. Survey Configuration and Questions

Variable		content	count	Source
Educational environment	Self-Censorship	Professor, curriculum, self-censorship according to in-school norms	10	Hayes et al(2005), In-depth interview
Relationship Conflict	individual Conflict	Difference in ability with others, Assessment satisfaction level, conflicting educational objectives, Level of goal setting and decision reflection	10	Jehn(1995), Young-bun Kim(2003), In-depth interview
	interpersonal conflict	organizational harmony, competitive conflict, unilateral problem-solving, unfair treatment		
locus of control	internal locus of control	Relationship with failure in accordance with effort and ability	8	Rotter(1966), Gee-yeon Kim(1999), In-depth interview
	external locus of control	Relationship with failure in accordance with difficulty of tasks and others	8	
basic data		Gender, Grade age, School, Speciality	4	

### 3.2.1 교육환경에 따른 자기검열의 특성요인

교육과 관련한 자기검열 이론에 따르면 자기검열(Self-Censorship)은 학습 과정에서 대립을 피하고자 본인의 학습 정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현상[4]이며, 예술에서는 창작 이후 형성될 수 있는 각종 억압을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 창작의 범위를 통제하는 것으로 행위로 구분한다. 예술대학생에게 자기검열이란 학습과 예술, 두 가지 영역의 검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주제로 이해된다. 따라서 예술교육이 상호관계적인 성격을 가지 는바, 대인과의 관계 속에 검열을 인지하게 되는 요인과 행동결과를 결정하는 내외적 심리의 연관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갈등요인은 대학 교육환경에서 나타나는 각종 대립, 견해차로 교육자-학습자, 교육과정-학습자의 관계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갈등유형은 예비연구에서 도출하였듯 학업평가를 위해 스스로 갈등을 회피하거나 교육자의 특성을 반영시키는 등의 자기검열 형태를 보일 뿐 아니라 학습자의 성취 의지와 창의적 사고를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습활동과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관계의 유형으로 내재적인 성격의 개인적 갈등과 외재적인 성격의 개인간 갈등으로 변수를 제안하고 자기검열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지 가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H1. 자기검열은 갈등관계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H1-1. 자기검열은 개인적 갈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H1-2. 자기검열은 개인간 갈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두 번째로 귀인성향은 이미 일어난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과성을 내적 또는 외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27,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검열이 개인이 목표로 하였던 학습 성취의 실패라면 그 인과성을 설명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이란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 가운데 내적성향 귀인(능력, 노력)과 외적성향 귀인(과제 난이도, 타인)으로 구분하고 학습 과정에서 자기검열에 유의한 관계를 맺는 귀인성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검열이 공격, 사적의 형태일 뿐 아니라 검열을 결정하는 양상이 내외통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인과귀인을 밝히는 것은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뿐 아니라

Weiner의 이론을 참고하여 자기검열에 귀인하는 특성에 따라 인과차원으로 연결되는 심리결과를 추론하고 행동 결과의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귀인성향의 유형으로 능력, 노력의 내적귀인 성향과 과제 난이도, 타인의 외적귀인 성향으로 변수를 제안하고 자기검열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지 가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H2. 자기검열은 귀인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H2-1. 자기검열은 내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H2-2. 자기검열은 외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세 번째로 갈등 관계와 귀인성향과의 관계는 지각되는 갈등원인을 특정한 특성으로 추론하고 매개되는 영향 관계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갈등이 조직 내 집단에서 발생하는 견해차로 인한 심리적인 대립과 행동이라 할 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과 그에 따른 심리적, 행동결과와 동기를 밝힘으로써 갈등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인적 갈등이 귀인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해결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외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등 내부에서 찾게 되며, 반대로 개인간 갈등이 귀인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와의 직접적인 마찰 혹은 대립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외부에서 찾게 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갈등문제에 내적귀인하는 경우 노력과 개선을 통한 긍정적인 행동결과를 보이는 한편, 외적귀인하는 경우 직면한 상황을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즉, 귀인성향과 갈등 관계의 관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행동결과와 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관계와 귀인성향 각각의 변수를 제안하고 양 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지 가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 H3. 갈등관계와 귀인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H3-1. 개인적 갈등은 내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H3-2. 개인적 갈등은 외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 H3-3. 개인간 갈등은 내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4. 개인간 갈등은 외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4. 분석결과

4.1 신뢰도 및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형의 가설검정에 앞서 항목의 변수의 신뢰도를 Cronbach's의 계수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신뢰성 검증결과, Cronbach's α값은 0.762~0.930으로 높게 나타나 측정 도구로서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이어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실시하고 단순성을 높이기 위해 배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타당성 검증은 KMO(Kaiser-Meyer-Olkin)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MO값은 0.794, Bartlett의 구형성검정(sig.(P)=0.00<0.05)에서도 적합하여 요인 모두 적절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s

Variable	Analysis					Cronbach's α
	1	2	3	4	5	
1. Self-Censorship	.523	.273	.108	.328	-.055	.915
	.572	.210	.059	.274	-.085	
	.683	.207	.092	-.044	.075	
	.631	.128	.176	.082	.083	
	.750	.032	.091	.164	.042	
	.693	.113	.066	.028	.103	
	.791	-.041	.083	.144	.045	
	.787	.061	.093	.229	-.022	
	.740	-.043	.129	.230	.003	
2. interpersonal conflict	.818	.092	.081	.199	.066	.930
	.103	.831	-.039	.047	.138	
	.092	.856	-.120	.120	.033	
	.088	.864	.014	-.026	.183	
	.118	.877	.015	-.031	.195	
3. individual Conflict	.034	.879	-.129	-.051	.188	.762
	.061	-.190	.444	.273	-.121	
	.049	.007	.589	.200	.179	
	-.032	-.133	.511	.419	.213	
	.042	-.046	.633	.194	-.067	
	-.068	-.080	.700	.268	.060	
	.070	-.113	.734	-.079	.091	
4. external locus of control	delete delete					.786
	.234	-.025	-.113	.693	.026	
	.490	.064	.328	.461	.016	
	.376	.009	-.024	.579	.094	
	.254	.171	.057	.611	.051	
	.314	.067	.065	.675	.018	
	.260	-.090	.134	.695	.031	
	.269	.125	.215	.613	-.006	
.240	.024	.154	.687	.063		

5. internal locus of control	.085	.288	.087	-.034	.784	.836
	-.029	.148	.125	-.119	.836	
	.008	.277	.077	.165	.799	
	.221	.070	.026	.147	.819	
	-.067	.101	.214	-.335	.338	
Eigen-value	6.18	4.25	3.94	3.07	3.03	
% of Variance	17.6	12.15	11.2	8.79	8.67	
Cumulative % of Variance	17.68	29.84	41.11	49.90	58.57	
KMO=.794 Bartlett chi-square=3519.973, df=595, significant =.00						

4.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변인들인 자기검열, 갈등요인 및 귀인성향 간의 관계성 및 방향성 파악을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으며, p<0.5 수준에서 변수 대부분이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 matrix

Variable	1	2	3	4	5
1. Self-Censorship	1				
2. interpersonal conflict	.212**	1			
3. individual Conflict	.187*	.000	1		
4. external locus of control	.633**	.174*	.055	1	
5. internal locus of control	.231**	-.177*	.180*	.566**	1

\* p<.05 \*\*p<.01

4.3 가설의 검증

4.3.1 가설1의 검증

H1. 자기검열은 갈등관계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1-1. 자기검열은 개인적 갈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1-2. 자기검열은 개인간 갈등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1은 자기검열과 갈등요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검열을 독립변수로 하고 갈등요인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Table 7과 같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선의 F값은 4.320이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개인간 갈등의 회귀계수는 .214의 p<.01, 개인적 갈등은 .193으로 p<.05수준에서 채택되었다. 두 갈등요인 모두 자기검열에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지며, 개인간 갈등의 회귀계수가 개인적 갈등의 계수보다 높기 때문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설 1은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7. Verification of Results for H1

Variable	B	SE	$\beta$	t(p)	F(p)	R <sup>2</sup>
-		.078		.079	4.32**	.453
individual Conflict	.215	.079	.214	2.72**		
interpersonal conflict	.105	.080	.193	1.57*		

\* p<.05 \*\*p<.01 \*\*\*p<.001

4.3.2 가설2의 검증

H2. 자기검열은 귀인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1. 자기검열은 내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2-2. 자기검열은 외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2의 검증결과, 자기검열과 귀인성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검열을 독립변수로 하고 귀인성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Table 8과 같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선의 F값은 56.559이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하지만 내적귀인 성향을 종속변인으로 할 때 자기검열과 유의하지 않았으며, 외적귀인 성향의 회귀계수는 .742로 p<.001수준에서 채택되었다. 하지만 내적귀인 성향의 계수가 -.191로 부적인 것을 감안할 때, 통계적으로도 외적귀인 성향이 자기검열에 더 관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예술대학생은 자기검열의 원인으로 내적특성(노력, 능력)보다 외적특성(타인, 과제 난이도)으로 행동결과를 지각하고 해석하는 특징을 보이며, 가설2는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8. Verification of Results for H2

Variable	B	SE	$\beta$	t(p)	F(p)	R <sup>2</sup>
-		.061		.102	56.5***	.418
external locus of control	.73	.074	.742	9.94***		
internal locus of control	-.191	.074	-.192	-2.57		

\* p<.05 \*\*p<.01 \*\*\*p<.001

4.3.3 가설3-1의 검증

H3-1 개인적 갈등은 귀인성향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1-1. 개인적 갈등은 내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1-2. 개인적 갈등은 외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3-1의 검증결과, 개인적 갈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귀인성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Table 9와 같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선의 F값은 3.278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하지만 변수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이 기각되었다. 즉, 귀인성향은 개인적 갈등으로 인한 결과에 유의한 특징을 가지지 않으며,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Table 9. Verification of Results for H3-1

Variable	B	SE	$\beta$	t(p)	F(p)	R <sup>2</sup>
-		.078			3.278*	.128
external locus of control	.106	.095	.106	1.122		
internal locus of control	.120	.095	.120	1.264		

\* p<.05 \*\*p<.01 \*\*\*p<.001

4.3.4 가설3-2의 검증

H3-2 개인간 갈등은 귀인성향은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2-1. 개인간 갈등은 내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H3-2-2. 개인간 갈등은 외적귀인 성향과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3-2의 검증결과, 개인간 갈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귀인성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Table 10과 같이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선의 F값은 5.627이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하지만 내적귀인 성향을 종속 변인으로 할 때 개인간 갈등과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외적귀인 성향의 회귀계수는 .229로 p<.001수준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내적귀인 성향의 계수가 -.3.277로 부적인 것을 감안할 때, 통계적으로도 외적귀인 성향이 개인간 갈등과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예술대학생은 개인간 갈등관계에서 자기검열이 나타날 때, 지각된 원인을 외적특성(타인, 과제 난이도)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가설3-2는 부분 채택되었다.

Table 10. Verification of Results for H3-2

Variable	B	SE	$\beta$	t(p)	F(p)	R <sup>2</sup>
-		.077		.102	5.62*	.278
external locus of control	.229	.093	.229	2.44***		
internal locus of control	-.306	.093	-3.27	-2.57		

\* p<.05 \*\*p<.01 \*\*\*p<.001

회귀분석 결과 가설1의 자기검열과 두 가지의 관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가설2의 결과 자기검열과 외적귀인 성향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내적귀인 성향은 기각되었다. 가설3은 개인적 갈등에 대한 귀인성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개인간 갈등에서 외적귀인 성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채택되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자기검열과 개인간 갈등, 외적귀인 성향 관계에 대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여 각 유형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4.4 가설의 매개효과 검증

##### 4.4.1 자기검열, 개인간 갈등, 외적귀인 성향의 관계 검증

매개효과 실행 결과는 Table 11와 같다. 자기검열은 개인간 갈등과 유의한 관계를 예측하였으며( $\beta=.212$ ,  $p<.05$ ) 개인간 갈등에 대해 38%의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2=.389$ ). 즉, 자기검열은 개인간 갈등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개인간 갈등과 외적귀인 성향을 예측하고( $\beta=.446$ ,  $p<.05$ ), 외적귀인 성향을

28%( $R^2=.266$ )만큼 설명하였다. 또 자기검열과 외적귀인 성향을 예측하였으며( $\beta=.633$ ,  $p<.001$ ), 외적귀인 성향에 39%( $R^2=.396$ ) 설명하였다. 이로써 Step1부터 Step3까지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Step4(C)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검열과 개인간 갈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외적귀인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인간 갈등을 추가하였을 때, 외적귀인 성향의 설명력은 39%( $R^2=.399$ )로써 Step3에 비해 미약하지만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아울러 Ste4에서 개인간 갈등은 외적귀인 성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 $\beta=.432$ ,  $p<.05$ )하였으며, Step3에서 유의하였던 자기검열과 외적귀인 성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beta=.651$ ,  $p<.001$ ). 이러한 결과는 자기검열의 귀인성향에 대해 갈등요인이 투입되었을 때, 외적귀인 성향으로 자기검열이 나타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 속 개인간 갈등관계가 외적귀인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Fig. 3과 같이 부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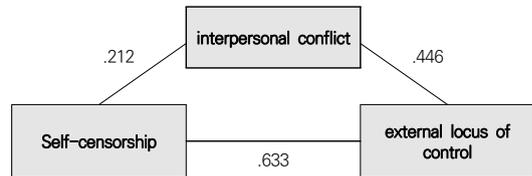


Fig. 3. A Model for the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conflict on Self-Censorship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

Table 11. The mediation analysis Validation Results

Step	Variable			B	SE	$\beta$	t(p)
Step1(A)	Self-censorship	→	interpersonal conflict	.211	.079	.212	2.689*
	F=7.229*			R <sup>2</sup> (adj-R <sup>2</sup> ) = .438(.389)			
Step2(B)	interpersonal conflict	→	external locus of control	.321	.070	.446	4.886*
	F=4.486*			R <sup>2</sup> (adj-R <sup>2</sup> ) = .286(.266)			
Step3(C)	Self-censorship	→	external locus of control	.638	.063	.633	10.135***
	F=102.712***			R <sup>2</sup> (adj-R <sup>2</sup> ) = .400(.396)			
Step4(C')	Self-censorship	→	external locus of control	.656	.064	.651	10.217***
	interpersonal conflict	→	external locus of control	.741	.064	.432	4.910*
	F=52.543***			R <sup>2</sup> (adj-R <sup>2</sup> ) = .407(.399)			

\* p<.05 \*\*p<.01 \*\*\*p<.001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설1의 연구 결과, 예술대학생은 내적갈등 혹은 교육자, 대학-학습자와의 조직 속에 일어나는 학업(직무)에 대한 갈등이 자신을 통제하거나 개인의 양가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자기검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연구 결과, 예술대학생은 타인과 과제 난이도와 같은 외부 특성으로 자기검열의 원인을 지각하고 있었다. Weiner 귀인 이론처럼 외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이 외부적이고 좌절과 수치심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가설 3의 연구 결과, 예술대학생에게 갈등 관계는 개인간 갈등으로 외적 귀인을 지각하였다. 외적 귀인이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갈등 관계에 따른 귀인 특성이 자기검열의 양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예술대학생은 타인과 과제 난이도 등의 외부특성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학습실패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좌절감, 수치심의 부정적인 정서가 자기검열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다르다.

앞선 자기검열 연구는 사회, 경제, 교육적 맥락에서 발생원인, 환경의 인과성을 밝히고 인간의 심리를 해석하는데 주력하였다면 본 연구는 예술대학생이란 교육과 예술이 복합된 대상의 자기검열 지각 원인과 전개 과정을 검증하였다. 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성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자기검열은 학습장애로 거듭날 수 있다. 또 예술대학생은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축적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외부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표현과 활동이 장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는 예술대학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개발, 예술을 통한 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예술대학 내 갈등 관계를 최소화하는 창작환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비연구와 같이 예술대학생은 교육자에게 위계를 느낄 뿐 아니라 학점이라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교육평가 과정에서 정형화된 규칙을 해체하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예술적 수월성과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과정 및 체계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예술대학생의 비교과 예술 활동 활성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자기검열은 외부적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좌절과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밝혔다. 즉, 자신의 행동이 불려올 결과에 대한 염려[3, 10]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창작 활동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과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과 예술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자기검열을 줄이고 자신감,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의 한계성이다. 예술은 다양한 전공과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의 예비조사는 시각 예술계열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예술 분야별 자기검열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으로 모든 예술대학생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측정변수의 한계성이다. 본 연구는 귀인 성향과 갈등이론 두 가지 이론으로 접근하였기에 자기검열에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변수에 한계성을 가진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을 늘리거나 설문 조사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더욱 상세한 자기검열의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반영하여 예술대학생의 자기검열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예술대학과 학습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예술대학이 목적으로 하는 창의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대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A. F. Hayes, B. Uldall & C. Glynn. (2010). Validating the Willingness to Self-Censor Scale II: Inhibition of Opinion Expression in a Conversational Setting.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4(3), 256-272.  
DOI : 10.1080/19312458.2010.505503.
- [2] J. K. Lee. (2017). An empirical study on the chilling effect, the enemy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college students: a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the chilling effect on expressions about sociopolitical campus and issues online and off-lin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 3(2), 169-203.
- [3] D. Bar-Tal. (2017). Self-Censorship as a Socio-Political-Psychological Phenomenon: Conception and Research. *Political Psychology*, 38(1), 37-65.  
DOI : 10.1111/pops.12391.
- [4] A. Roberts & R. Nason. (2011). Nobody says no: Student self-censorship in a collaborative knowledge building activity. *Journal of Learning Design*, 4(4),

- 56-68.  
DOI : 10.5204/jld.v4i4.89.
- [5] B. Yesil. (2014). Press Censorship in Turkey: Networks of State Power, Commercial Pressures, and Self-Censorship. *Culture and Critique*, 7(2), 154-173.  
DOI : 10.1111/cccr.12049.
- [6] A. F. Hayes, C. J. Glynn & J. Shanahan. (2005). Willingness to Self-Censor: A Construct and Measurement Too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3), 298-323.  
DOI : 10.1093/ijpor/edh073.
- [7] H. J. Cho. (2017). Conceptualizing Self-Censorship as a Press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4(3), 41-72.  
DOI : 10.22174/jcr.2017.54.3.41.
- [8] J. Horton. (2011). Self-censorship. *Res Publica*, 17(1), 91-106.  
DOI : 10.1007/s11158-011-9145-3.
- [9] A. F. Hayes. (2007). Exploring the Forms of Self-Censorship: On the Spiral of Silence and the Use of Opinion Expression Avoidance Strategies. *Journal of communication*, 57(4), 785-802.  
DOI : 10.1111/j.1460-2466.2007.00368.x.
- [10] A. Sillars & R. M. McLaren. (2015). Attribution in Conflict.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1-6  
DOI : 10.1002/9781118540190.wbeic113.
- [11] S. D. Williams. (2002). Self-esteem and the self-censorship of creative ideas. *Personnel Review*, 31(4), 495-503.  
DOI : 10.1108/00483480210430391.
- [12] F. J. Milliken, E. W. Morrison & P. F. Hewlin. (2003). An Exploratory Study of Employee Silence: Issues that Employees Don't Communicate Upward and Why.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0(6), 1453-1476.  
DOI : 10.1111/1467-6486.00387.
- [13] L. Perlow. (2003). *When you say "yes" but mean "no": How silencing conflict wrecks relationships and companies*. New York: Random House.
- [14] RUTH COMERFORD. (2020). *Culture of self-censorship in the arts revealed by survey*. THE STAGE.  
<https://www.thestage.co.uk/>
- [15] M. H. Paek. (2017).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the College of Fine Arts(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Viewpoint of Vocation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4), 109-131.
- [16] J. Y. Choi & B. S. Rhee. (2009). Examining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Learning Outcomes: Focusing on Effects of Colleg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7(1), 199-222.
- [17] B. J. Kim & H. S. Lee. (2014). An Analysis of Difference in Conflict Management Style by Type of Interpersonal Conflict. *The Research Institute of Future Industry*, 38(2), 27-44.
- [18] L. R. Pondy. (1967). Organizational Conflict: Concepts and Model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2), 296-320.  
DOI : 10.2307/2391553.
- [19] O. B. Sayeed. (2001).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nflict: Studies in healthy organizational processes*. Sage Publications.
- [20] R. L. Pinkley. (1990).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2), 117-126.  
DOI : 10.1037/0021-9010.75.2.117
- [21] M. A. Rahim. (2017). *Managing Conflict in Organizations*. DOI : 10.4324/9780203786482.
- [22] T. Greitemeyer & B. Weiner. (2003). Asymmetrical Attributions for Approach Versus Avoidance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1), 1371-1382.  
DOI : 10.1037/e633962013-423.
- [23] Y. H. Kang. (2017). A Attribution Theory for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Learning Strategy Intervention*, 8(1), 23-45.
- [24] F. Heider. (2013).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DOI : 10.4324/9780203781159.
- [25] B. Weiner. (1980). The Role of Affect in Rational (Attributional) Approaches to Human Motivation. *Educational Researcher*, 9(7), 4-11.  
DOI : 10.3102/0013189X009007004.
- [26] S. H. Lee & Y. W. Suh. (2015). The Effects of Disagreement, Interference, Negative Emotion on the Transference of Conflict.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8(3), 481-506.
- [27] J. B. Rotter.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80(1), 1-28.  
DOI : <http://dx.doi.org/10.1037/h0092976>.
- [28] B. Weiner.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In: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SSSP Springer Series in Social Psychology. Springer, New York, NY.  
DOI : 10.1007/978-1-4612-4948-1\_6.
- [29] J. Thompson. (1967). *Organizations in action: Social science bases of administrative theory*. New York: McGraw-Hill.
- [30] K. W. Thomas. (1992).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Reflections and updat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3), 265-274.  
DOI : 10.1002/job.4030130307.
- [31] S. H. Kim. (2006). *The study of individual value related to conflict perception, job performance and member*

*satisfaction: attribution style and emotional competence.*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orea, Seoul.

- [32] S. R. Oh. (1998). *The correlations among internal locus of control, school-related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ngik, Seoul.
- [33] B. Weiner. (1986). *Beyond Achievement Motivation: The Generality of Attribution Theory.* In: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SSSP Springer Series in Social Psychology. Springer, New York, NY.  
DOI : 10.1007/978-1-4612-4948-1\_7.
- [34] K. A. Jehn. (1995).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the benefits and detriments of intragroup confli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2)*, 256-282.  
DOI : 10.2307/2393638.
- [35] G. Y. Kim. (1999). *A Study on Ego-identity and Locus of Control Relation of College Students.* Conflieth.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Woosuk, Seoul.
- [36] Y. B. Kim. (2003). *A Study on Causes And Types Of Organizational Conflict.*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DanKook, Seoul.
- [37] K. Seally. (2016). Self-Censorship in Museums: The Case of Sex: A Tell-all Exhibition. *Graduate Student Journal of the Faculty of Information, 1(2)*. Retrieved from  
<https://thejournal.ca/index.php/ijournal/article/view/27076>.

김 광 철(Kwang-Cheol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음악학사)
- 1992년 2월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예술경영학 석사)
- 2011년 2월 가스페라 스폰티니 시립음악원(예술경영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예술학부 실용음악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예술경영, 뮤직비즈니스
- E-Mail : carte21@naver.com

송 진 호(Jin-Ho Song) [학생회원]



- 2019년 2월 : 세한대학교(예술경영학사)
- 2019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예술경영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예술경영, 예술교육
- E-Mail : pbucket@naver.com